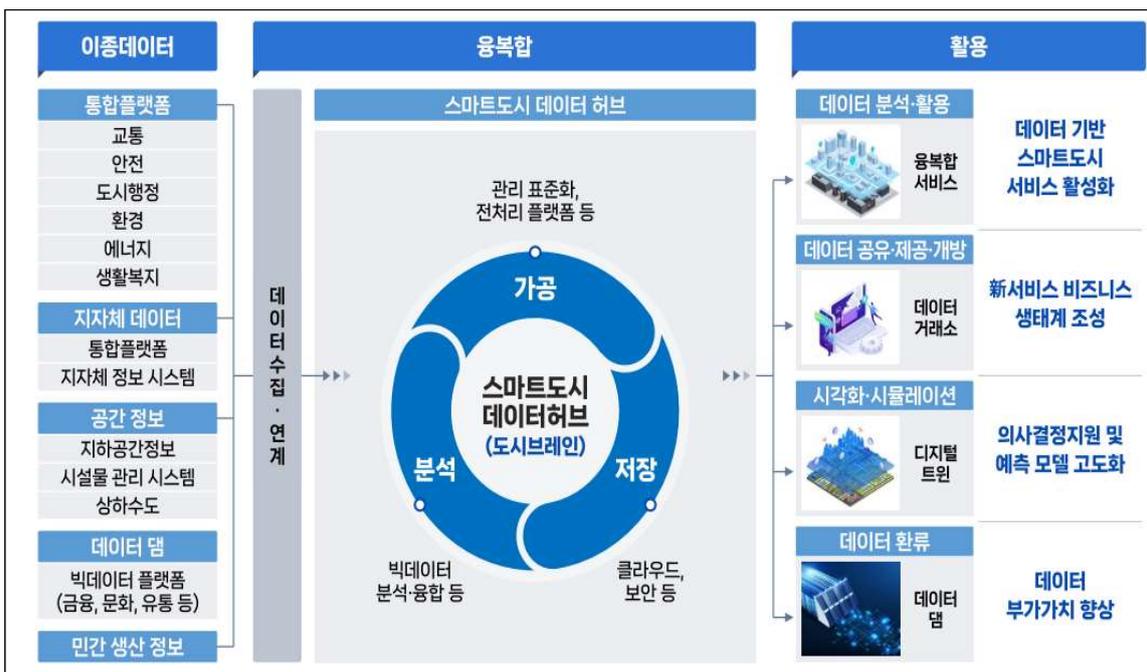


도시의 브레인 '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' 시범솔루션 발굴한다

-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허브 활용 ... 도시 간 함께 활용할 솔루션 개발
- 16일부터 첫 공모 ... 총 3개소 선정, 개소당 국비 최대 10억원 지원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·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「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사업」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.
- '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'는 교통·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,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·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.

<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개념도>



- 국토교통부는 '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.
-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,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,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.

<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주요 사례>

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	코로나 역학조사 지원 서비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데이터허브에 수집된 경찰청 신고 데이터, 지자체 CCTV 데이터, 유동인구 데이터를 융·복합 분석하여 범죄 발생지역 및 발생율을 고려한 효율적인 순찰노선 도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데이터허브를 활용(카드사·통신사·CCTV 정보 융합)하여 코로나 확진자 동선 정보를 생산, 동선파악 시간 단축 (수작업 24시간 → 시스템 10분)

-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,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,
 -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.
-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, 광역지방자치단체(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) 간 협업*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.
 - * (예시)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A 광역지방자치단체(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능)와 B 광역지방자치단체(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능) 공동 응모
- 총 3개소를 선정하며,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(국비:지방비 = 1:1 매칭)할 계획이다.
-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(Open Source)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여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.

-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,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“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 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,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,
 - “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-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(www.smartcity.go.kr)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	윤종빈	(044-201-4845)
		담당자	사무관	김애리	(044-201-4844)
			주무관	김성호	(044-201-4976)

